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



여성
과
계속되는
회복

여성의 영원한 영향력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의 메시지, 8쪽

여성과 신권 권능

본부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회 직원들의 가르침,
12쪽





📍 여기에 교회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대부분의 사람은 홍콩이라 하면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잡한 항구 도시를 떠올린다. 그러나 홍콩의 교외 지역은 한산한 편이다. 삼 대로 이루어진 교회 회원 가족이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한 이웃이 바라보고 있다.



회원 수: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



스테이크 6개, 선교부 1곳, 성전 1곳



1949년: 선교부 본부가 세워짐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임

이 사진은 홍콩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어머니 캐리 슈펀 리양과 딸 셰일라 수에티 리양의 모습이다. 성역에 대해 질문을 받은 캐리 리양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이 됨이니라.”

교리와 성약 25:1



HE HEALED MANY OF DIVERSE DISEASES [그가 여러 다양한 병을 치유하시니]. 제이 커크 리처즈, 복사 금지

세상에는 충실한 여성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어머니 이브가 살았던 창세 이래로, 여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도록 돕는 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 우리는 복음의 회복 초기에 살았던 몇 명의 여성 개척자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쪽에서 우리는 에머 스미스의 용기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5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녀에게 거룩한 찬송가를 모아 책으로 만들도록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은 충실한 여성들의 뜻깊은 공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합니다. 12쪽에는 교회 본부 직원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신권 권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신권 권능을 통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8쪽에서 엠 러셀 벨라드 회장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여성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별이나 나이, 인종, 환경을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신성한 유산과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진실한,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



“각 여성은 저마다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진 비 빙엄 회장, 13쪽

특집

『리아호나』, 2021년 3월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



표지

사진: 크리스티나 스미스

목차

- 6 복음의 기초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셨다
- 8 여성의 필수적인 역할**
엠 러셀 벨라드 회장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여성들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
- 12 신권의 권능을 경험함**
교회를 이끄는 일에 일조하는 여성들이 신권의 축복을 받은 경험을 나눈다.
- 16 후기 성도의 소리**
전 세계 회원들이 전하는 신앙의 이야기.
- 20 성역의 원리**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십시오
- 22 부모 여러분에게**
성찬과 음악
- 24 2020년 10월 연차 대회를 돌아보며**
- 30 음악을 예배의 중심에 둬**
젠 핀보로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스러운 음악이라는 영적인 자양분이 필요하다.
- 34 음악**
아들 보내셨네
작사: 메이블 존스 가보트,
작곡: 마이클 핀린슨 무디
- 40 충실한 노후 생활**
“할아버지, 저는 아가가 아니라고요”
마이클 알 모리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2021년 3월호 제58권, 제3호
리아호나 17466 320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올런드, 데이타 에프 우후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헨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펄크
고문: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티스, 미셸

크레이그, 베키 크레이븐, 쉐런 유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터 에프 곤잘레스, 제러미 알 야기, 쟈니 뉴먼, 에이드리언 오초야, 브래들리 알 윌콕스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예런 존스턴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매튜 디 플리턴, 민디 셀루
출판 보조: 이니시 시 다빌라
기사 작성 및 편집팀: 게릿 에이치 가프, 차켈 위틀레이 허버트,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롬니, 마거릿 윌리스
편집 인턴: 윌리 홀트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킥클러, 예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랜, 스콧 엠 무이, 알레나 레기어
디자인 인턴: 헤일리 와그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코 오운
제작 관리자: 암온 해리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에더어, 줄리 버넷, 호세 차베스,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닐슨, 머리사 엠 스미스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59호, 제58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1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철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나길 37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제중준

와서 나를 따르라

25 회복 초기의 여성들

경전을 지킨 어머니

제니퍼 리더

어머 헤일 스미스의 생애에 있었던 특별한 순간들.

26 교리와 성약 20~29편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주간 기사.

36 교회의 일어남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구주의 교회는 많은 축복과 더불어 회복되었다.

청년 성인

42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지구를

더 잘 돌보는 청지기가 됩시다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우리가 세상을 더 잘 돌볼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감을 주고 우리를 더 복돋워 줄 것이다.

46 난임을 통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에 대해 내가 배운 것들

진 옐로호스

자녀를 갖기 위해 기다리면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48 추가 기사

이번 달에는 청년 성인을 위해 어떤 온라인 기사가 실렸는지 살펴봅니다.

한국 지역 소식

『리아호나』 잡지에 삽입되어 있는 지역 면에서 여러분의 지역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봅니다.

온라인 전용 기사

다음 기사들은 복음 자료실에 있는 이번 호에서 읽을 수 있다.

아름다운 지구를 위하여

애널리스 가디너

기독교 전통에 대해 배움으로써 부활절은 내게 더욱 의미있는 것이 되었다

해나 모텐슨

나의 단별 바자: 간소한 삶에 대한 복음의 관점

사무엘 하포넨

격려 기간 동안 성찬을 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다

벤 버닝햄

의로운 여성들의 영웅적인 영향력

조셀린 털리



참여해 주세요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오디오 및 온라인 파일이나 인쇄가 가능한 형식으로 잡지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질문과 피드백 및 경험을 나누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우편 주소를 통해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Liahona, floor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리아호나 구독 및 주소 변경

www.liahona.kr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제약이 있는 경우 080-238-8000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1년 구독료는 10,700원, 권당 가격은 1,1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흥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간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매주 구주를 기억하면서 깨끗하게 되고 치유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이 식사를 마치시면서,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성찬을 소개하셨다. 그분은 떡을 떼어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그런 다음 그분은 포도주를 축복하고 나누셨다.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일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을 때, 성찬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일부가 되었다. 교회 모임 동안, 신권 소유자들이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한다. 그들은 경전에 나오는 기도문을 사용해 기도한다.(교리와 성약 20:75~79) 그런 후에 함께 모인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

성찬을 취하기 위한 준비

성찬을 취하기 위해 준비를 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주에 저지른 실수와 죄를 회개해야 하며, 회개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성찬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한다.

빵과 물 이상의 것

성찬을 취하는 시간은 성스럽고 거룩한 시간이다. 성찬 기도는 우리가 빵과 물을 취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함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대가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며, 치유해 준다.



성약을 새롭게 함

침례를 받은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한다. 여기에는 다시 침례를 받는 것 같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성신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희망과 자비이다.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경전은 성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성찬을 취하기 전에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고,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린도전서 11:28 참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성찬을 취하는 방법을 마태복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다.(제3니파이 18장 참조)

현대의 선지자들이 성찬을 위해 빵과 물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교리와 성약 27:2 참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빵과 유사한 다른 음식을 대신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기억해야 할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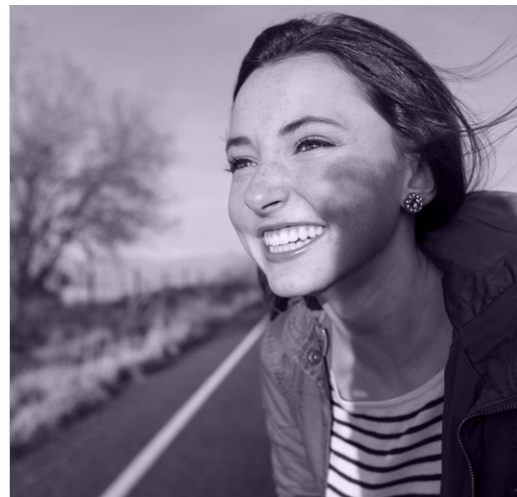
성찬에 대해 배우면서 여러분이 즐거웠기를 바란다. 다음은 이번 호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복음 용어이다.

신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12쪽 참조)

지지하다: 교회에서 손을 들어 부름받은 사람을 지지한다는 의사 표현 행위.(27쪽 참조)

복천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평화로운 천 년의 기간.(29쪽 참조)

찬송가: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스러운 노래.(30쪽 참조)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여성의 필수적인 역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의 충실하고 훌륭한 자매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운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의 왕국이 전진해
나가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도록 돕는 일에서
여성들처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이 다른 성약의 여성들과 단합하고 조화를 이룰 때,
선한 영향력은 무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 내에서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서 발휘되는 여러분의 중대하고도 영원한 영향력을
목격했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문화와 나라에서 그 영향력을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부와 와드, 스테이크, 선교부, 성전, 그리고 전반적인
교회 임무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도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이
시민, 교육, 보건, 스포츠 단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각종 사업 및
자선 단체에서 기여한 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의회의 여성들

저는 충실한 여성들이 참여하는 평의회의 힘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과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교회와 세상을 풍성히 축복해
주고 계시는데, 이는 더 많은 자매 선교사들이 선교부 지도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봉사하고 있고 선교부 지도자 평의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른 나이에 엔다우먼트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 중 성전 성약을
 맺은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부 회장단에 있는 자매

지도자들은 연차 대회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경전 속 여성들

경전과 교회 역사에 여성에 관한 일화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젊은 자매님이 했던 것처럼
여성들의 영향력을 찾아낼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몬에게는 모로나이처럼 훌륭한
아들을 키워 낸 대단한 아내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영을 지니고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와 유사한
효과적인 양육법이 나타난 부분을 경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충실한 교회 자매들과 그들의
공헌에 주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에게
history.ChurchofJesusChrist.org에 나오는 “신념에 찬 여성들”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개혁자 자매들의 역할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후기 성도가 아니었던
한 작가는 개혁자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정말 대단했더군요.”

우리의 경전과 역사에 나오는 여성들을 살피고 찾아볼 때, 우리는
여성들이 우리 가정과 지역 사회, 교회,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힘과
영향력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발전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예언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성이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되고, 주요 기업 및 조직의 최고 책임자 직책을 맡고, 명문 경영 대학과 법과 대학, 의과 대학에 입학하는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1842년에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열쇠를 여러분에게 위임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상호부조회에 기쁨과 지혜와 지식이 넘쳐흐를 것입니다. [여성들이] 맞이할 더 좋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²

여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발전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결국 대립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설명된, 따라야 할 거룩한 모형이 있으나, 우리는 필멸의 삶이 복잡할 수도 있음을 압니다.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는 여성이 많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도 있고, 사별하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 된 여성도 있습니다. 또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실하게 끝까지 견딘다면, 의로운 소망이 허락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결국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과 관련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안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비된 축복

성전 예배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 회원이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딸과 아들들을 위해 영원에 걸쳐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이 이러한 맥락에서 주신 다음 통찰은 그 축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늘 부모와 같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³

복음의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이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버거운 필멸의 도전을 거쳐 영원한 승영을 위한 모든 필수 의식을 받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요 골자를 주셨으면서도, 선택과 충실함으로 세세한 부분에 살을 붙이는 일은 우리 몫으로 남겨 두셨습니다. 엄청나게 행복한 결말이 그것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말을 얻으려면,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자녀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성

삶은 교회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야말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주의 속죄의 진리와 권능을 아직 느껴 본 적이 없다면, 회복의 주요 메시지에 다시 초점을 맞춰 보시도록 권합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증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교리와 성약 76:69)

자매 여러분, 부디 회복의 간결하고도 주요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고 맞이하십시오. 그것을 사랑하고 나누십시오. 그것을 수호하십시오.

성약의 힘을 지닌 여성들

이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당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요청한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행하시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뿐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⁵

“주님과 성약을 맺은 이 교회의 모든 자매들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돕고,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고, 시온의 가정들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⁶

회원들 개개인의 삶에서 더 큰 신앙을 키우도록 도움으로써 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충실한 여성들은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하는 데 언제나 필수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여성 여러분은 이루어야 할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단력과 신앙이 있으며, 헌신하고, 행동하는 여성입니다.

과거의 충실한 자매들처럼,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질 모든 영원한 축복을 얻기 위해 부여받은 신권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의 딸들.

합니다.

구주이신 주님께서 “이만하면 족하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성장과 준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온한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깃들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충실하고 훌륭한 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운명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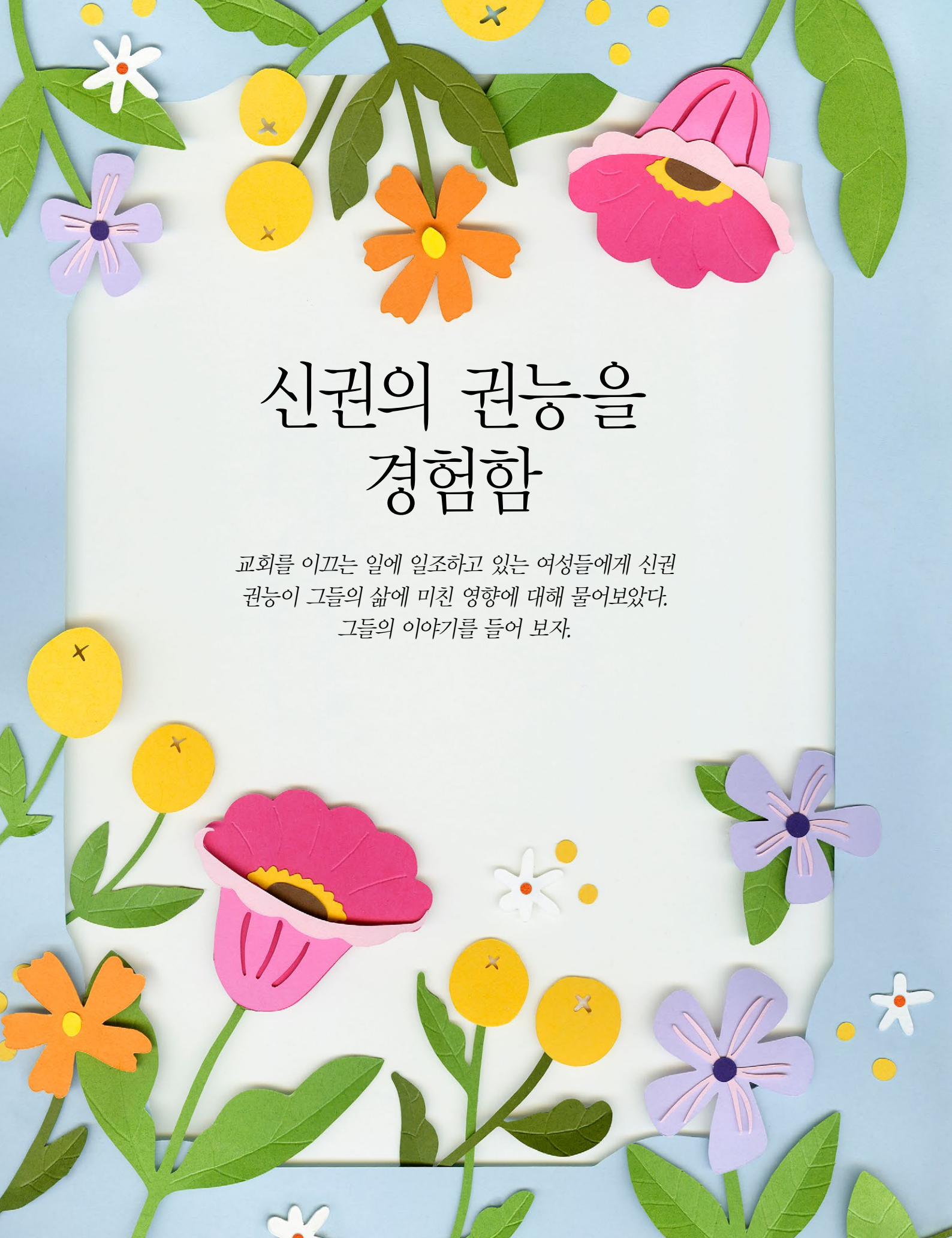
2015년 5월 1일에 브리검 영 대학교 여성 대회에서 전한 말씀, “Women of Dedication, Faith, Determination, and Action [헌신하고, 신앙과 결단력이 있으며, 행동하는 여성]”에서 발췌함.

주

1. Wallace Stegner, *The Gathering of Zion: The Story of the Mormon Trail* (1964), 13.
2. 조셉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7), 14쪽.
3. 맬린 에이치 옥스, “동성에게 매력을 느낀”, 『성도의 빛』, 1996년 3월호, 15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53쪽.
6. 엠 러셀 벨라드, “의로운 여성”, 『리아호나』, 2002년 12월호, 39쪽.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여성들은 이루어야 할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경험함

교회를 이끄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신권
권능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지만, 가정과 교회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책임을 집니다. 신권 권능을 통해 사람은 저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권능이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적든,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교회의 모든 합당한 회원은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이 디 존스 회장, 본부 초등회 회장

“봉사는 우리 영혼을 키우고 관점을 넓혀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풍족히 활용하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며, 사탄도 이를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시도하는 대적은 우리를 압도하려 하거나, 우리가 배풀려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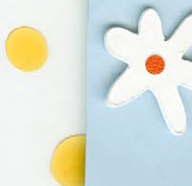
… 친절한 행위에 절대 회의감을 갖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평화를 찾고, 힘을 얻을 것이며,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니 에이치 코든 회장, 본부 청년 회장

“여성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 여성은 저마다 능력과 재능이 있으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만, 또 모든 여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누가 주신 것인지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발견하고 키워야 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는 삶에서 신권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 비 빙엄 회장,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신권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자주 찾으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 이것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경전과 현대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면, 이 지식이 성장할 풍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신권 의식을 통해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력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옵니다.(니파이후서 28:30)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교리와 성약 121:45)”

—리사 엘 하크니스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우리 각자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재정적인 면, 그리고 정신이나 신체의 건강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겨운 과제와 매일 해야 할 일들의 목록 사이를 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 중에는 슬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겪는 어려움은 각기 다르지만, 누구든 힘든 일을 겪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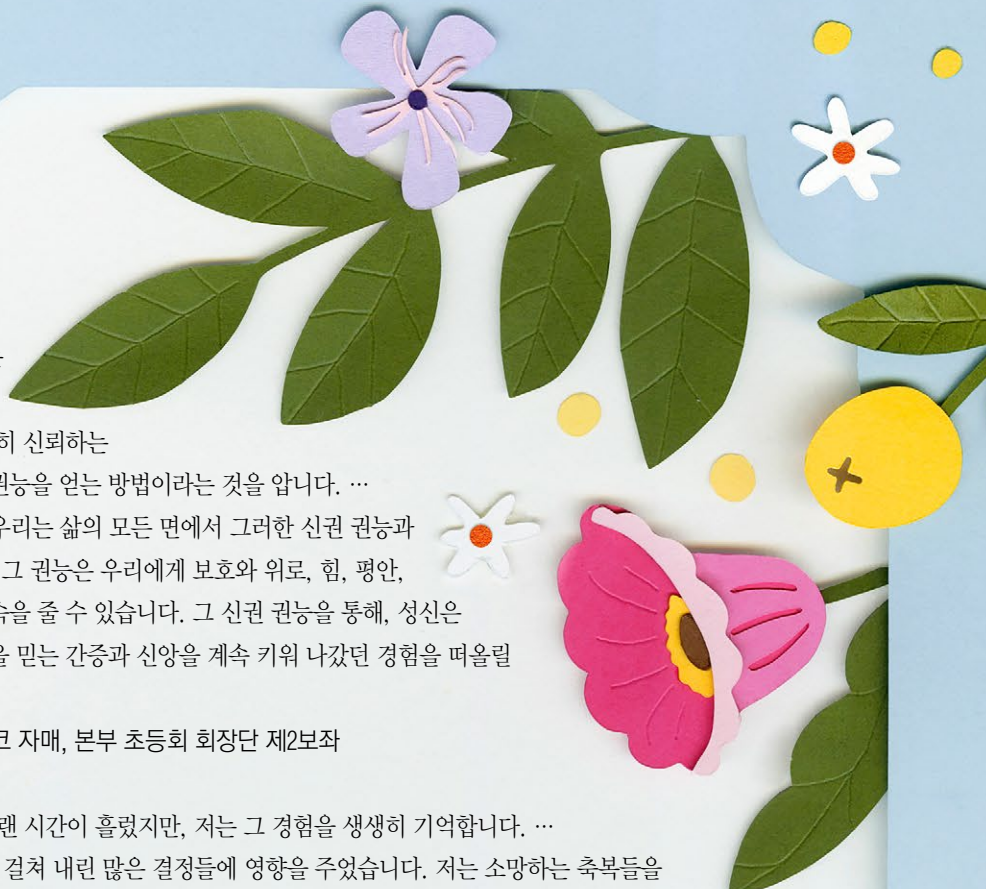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리라고 약속하신다는 의미임은 분명합니다.”

—미셸 크레이그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저는 신권 권능이 하나의 가늘고 매끄러운 흰색 실이라고 봅니다. 그 실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우리 삶에서 그만의 방향으로 이리저리 감기며 엮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정교한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묵고 하늘에서도 묵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제단을 덮습니다. ...

거룩한 성전 제단을 덮고 있는 천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성전이 지닌 가장 강력한 상징 중의 하나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정교하고도 거룩한 계획 안에서 함께 모이고 묵기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권능을 빌려주시는지를 보여 줍니다.”

—웨런 유뱅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제 인생 경험을 통해 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갖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신권 권능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

... 끝까지 충실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러한 신권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보호와 위로, 힘, 평안,
그리고 영원에 이르는 약속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신권 권능을 통해, 성신은
또한 제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간증과 신앙을 계속 키워 나갔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 경험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

그 경험은 제가 평생에 걸쳐 내린 많은 결정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축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의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축복사의 축복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키 크레이븐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저는 26세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따를 때면 위로받는 느낌이 들곤 했지만, 당시 그 성약에 대한 제 이해력은 마치
자그마한 씨앗과도 같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월이 흐르고 침례 성약을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다른 성약들을 지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저는 그분과 제 구주에 대해,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성약의 자녀라는 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그분께 받았다고 느낍니다.”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

세미나리 교장에게 바치는 헌사

조이앤 베르게빈, 미국 워싱턴주

우리는 자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을 축복한다.

내 남편 제리는 수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같은 집회소를 사용하는 와드들의 세미나리 교장이 되었다. 그가 매일 새벽같이, 특히 어둡고 추운 겨울철에 잠에서 깨어나 교회에 가는 일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제리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

제리가 죽고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오래전에 이사를 간 한 자매의 감동적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 편지는 그녀의 청첩장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베르게빈 형제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우리 세미나리 교장님 중에서도 형제님이 최고였어요. 매일 아침 형제님은 현관 안에서 기다리시다가 도착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문을 열어 주셨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똑같이 문을 열어 주시면서 ‘학교에서 좋은 하루 보내렴!’ 하고 인사하셨어요.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가끔은 형제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형제님이 함께 계셔서 더 큰 안정감을 느꼈어요.

형제님은 언제나 겸손하셨고, 형제님이 친절하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형제님 덕분에 저도 세미나리에 더 잘 나갈 수 있었어요. 베르게빈 형제님이

추운 날씨에 제가 오는 중인지, 늦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기다리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속에 남아 계실 거예요.”

제리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려 깊은 젊은 자매는 여전히 내 남편을 기억했고, 다정하게도 이 사랑스러운 편지를 보내어 내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었다.

찬송가 “선한 영향 주는 삶”(173장)은 이런 가사로 시작한다.

선한 영향 주는 삶
주 자비 더하여 주네
선행을 하는 자 통해
하늘의 축복 주소서

나는 이 곡을 제리의 장례식 찬송가로 택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자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삶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제리가 관대함과 봉사와 사랑으로 많은 이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안다. ■



사진: GETTY IMAGES, 모렐이 포즈를 취함

앙드레와 지젤 피멘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젤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된 이후, 많은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브라질로 돌아갈 때가 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앙드레

감독님은 우리가 브라질에 있는 수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이루지 못할 성장을 그곳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이룰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가까이 지내라고 조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브라질로 가서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더 알아보기

- 피멘텔 부부의 이야기를 ChurchofJesusChrist.org/go/32117에서 읽어 본다.

사진 촬영: 코디 벨



허둥지둥 도착한 성찬식에서

엘리즈 브랜팅햄, 미국 애리조나주

성찬을 또 놓쳤구나 싶었다.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사하면서, 남편과 나는 절대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1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일요일 모임을 꼬박꼬박 참석했지만, 사실 지각을 다반사로 하고 성찬을 놓친 적도 자주 있었다. 우리 와드의 성찬식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했다. 어린 자녀가 셋이나 되고 보니 정시에 교회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교회에 항상 정시에 도착해서 성찬을 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4주 연속으로 정시에 교회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중에 영적인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다음 일요일에는 늦잠을 자고 말았다. 벌써 아침 7시 30분이었다. 남편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어떻게든 축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리나케 서둘렀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20분이나 늦은 상태였다.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감이 들었다. 우리가 현관문에 들어섰을 때,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문을 열자 누군가가 기도하러 연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개회 찬송이었어요?” 나는 문 옆에 서 있던 선교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가 말했다. “네, 오늘 늦게 시작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또다시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제시간에

교회에 도착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다.

나는 왈각 눈물을 쏟았다.

나중에 들으니, 선교사들이 그날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찬에 사용할 빵을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근처에 상점도 없는 데다 베트남에서는 빵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잠시 공황 상태에 빠졌던 장로들은 집에 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마침 며칠 전에 장로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우리 집으로 왔었는데, 그날 저녁에 나는 장로들을 위해 직접 만든 빵을 준비했었다. 장로들이 내가 만들어 준 빵을 가지러 집에 다녀오느라 그날 교회 모임이 조금 늦게 시작했던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쓸 때, 그분은 우리의 노력을 눈여겨보신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고작 제시간에 교회에 도착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



“낙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파스칼 코아메 코아시,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하나님께 이 새로운 길에 대해 기도로 여쭙었을 때, 나는 내가 찾은 진리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다른 교회에 헌신적으로 다니던 신도였다. 어느 날 나는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연옥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개념은 육체적인 죽음 뒤에 영혼이 감옥과 비슷한 장소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혼은 낙원으로 가기 전에 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렇게 간구하기 시작했다. “연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낙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일상에서 십계명을 준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연옥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했고, 집중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 기간에 나는 내가 수석 회계사로 일하던 병원의 한 의사에게 특이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티바우트 선생님, 선생님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의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다니는다고 말했다. 그 시점부터 영이 우리의 토론을 인도했다. 나는 그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몰몬경을 이야기했다. 대화를 계속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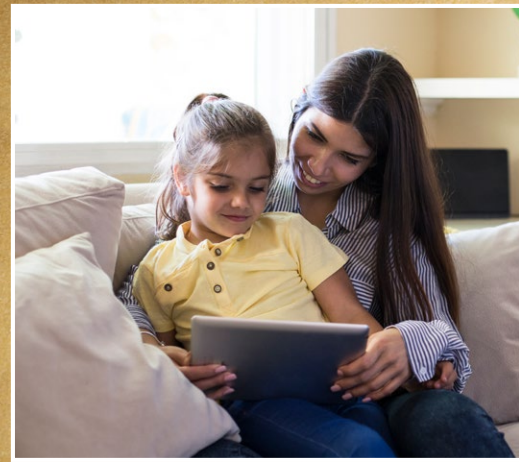
이틀 후, 선교사들이 내게 몰몬경을 주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그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경전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다니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이 새로운 길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내가 찾은 진리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박해를 받게 될 거란 걸 알았지만, 나는 교회에 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실제로 박해가 뒤따랐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해 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낙원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나의 진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다면, 죽음 이후에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십시오

성역 대상자들에게 기술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제언과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늘날 많은 문화권의 가정이 직면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미디어와 현대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기기는 오늘날 많은 문화권 안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으며,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일상 활동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선하게든 악하게든 끝이 없는 듯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많은 개인과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찾고 있다.

스페인의 교회 지도자인 마르타(가명)는 스마트폰 덕분에 복음 공부를 더 훌륭히 해내고, 더 쉽게 성역 대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복음 생활 앱을 통해 개인적인 발전에도 도움을 받고, 자신의 부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자신이 휴대전화를 손에서 잘 놓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한국의 십 대 소년인 관은 학교 공부에 필요한 조사와 과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가족용 컴퓨터를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숙제를 마치고 남은 시간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의 부모는 이 문제로 걱정이 많다.

케냐의 청년 성인 데클런은 매일 스마트폰을 손에 든 사람들을 본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경전과 잡지, 그리고 기타 교회 콘텐츠 등 그의 삶을 훨씬 더 편하고 흥미롭게 만들어 줄 정보에 즉시 접속할 수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저것 생활비를 쓰기에도 빠듯하여 스마트폰을 살 돈이 없다. 데클런은 자신만 뒤쳐진 것 같다는 기분을 느낀다.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런 혼란스러운 주제에 대한 답을 찾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

다음은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언과 자원들이다.

미디어 및 현대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언

-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행하고, 기량과 재능을 계발하고, 의미 있는 취미 활동과 여타 활동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전자 기술 없이도 소중한 시간을 보낼 의미 있는 방법을 찾는다.
- 현대 기술은 구체적인 목적 아래 사용하되,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사용을 제한한다. 이런 감정과 기타 다양한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쉽사리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을 찾는다.



- 규칙을 지킨다. 기기 사용 기록을 남기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설정을 활용한다.
-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한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적인 친분을 우선시한다. 특히 진심 어린 감정이나 중요한 생각을 나눌 때는 전자 통신과 그 외의 소통 형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기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주기적으로 기기 사용을 한동안 멈추는 규칙을 가족 모두가 지키도록 권한다.
- 알림이나 메시지에 일일이 즉시 답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한다.

대화 시작하기

- 현대 기술 및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을 이야기하며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 그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찾았는지 물어본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일부 나눌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 나눌 수 있는 성구: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지혜롭고(야곱서 6:12 참조), 모든 일에 절제하며(엘마서 7:23 참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살피고(모사이야서 4:30 참조), 본이 되라고(디모데전서 4:12 참조) 권유했다. ■

유용한 자료

- 현대 기술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가족 및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다음 기사를 읽는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조절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되찾는 방법”, 『리아호나』, 2020년 8월호, 26~31쪽.
- 『전자 기기 사용 안전 수칙』(2018)을 읽는다. 이 소책자에 나오는 지침은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이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책자는 복음 자료실에서 28개 언어로 볼 수 있으며, 배부 센터 또는 온라인 상점에서 인쇄본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성찬과 음악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교회 잡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고려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번 호는 성찬, 영감을 주는 음악, 회복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 부활절, 연차 대회 준비 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호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할 방법을 알기 위해 아래의 제언을 참고해 보십시오.

복음 토론

교회의 일어남

36쪽의 데 호요스 장로의 기사를 읽고, 살아 있는 선지자와 참된 교리, 신권 의식 등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받는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음악의 중요성

음악은 왜 주님께 특별한가? 34쪽에서 새로 편곡된 “아들 보내셨네”를 듣거나, 부르거나, 연주해 보고, 곡이나 가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본다. 음악의 중요성과 축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30쪽에 있는 기사를 읽는다.

회복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

25쪽에서 에머 스미스가 물몬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읽어 본다. 여성들은 어떻게 교회에 축복이 되었으며, 어떻게 계속 축복이 되고 있는가? 8쪽에 있는 벨라드 회장의 메시지를 읽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의로운 여성들에게 편지나 친절한 행동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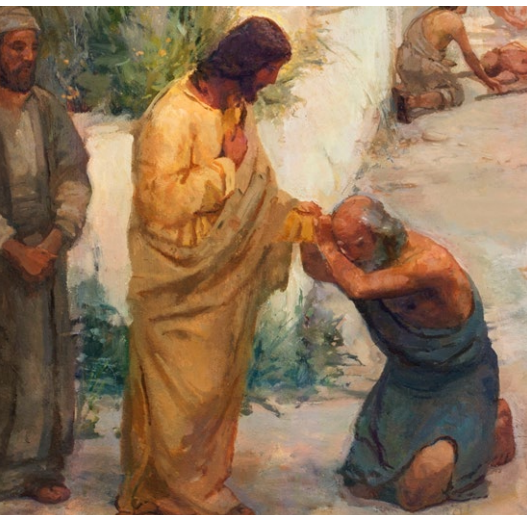
성찬을 특별하게 만들

18쪽에서 베트남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성찬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교회 가는 길에 찬송가를 듣거나 부르는 것, 성찬식 동안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성품에 대한 성구를 떠올리는 것, 또는 성찬 기도문을 숙고하는 것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6쪽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성찬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지원

온 가족이 함께 해 볼 수 있는 실물 공과, 성구 시슬, 그 밖에도 『와서 나를 따르라』 주간 학습을 위한 보충 자료가 26쪽에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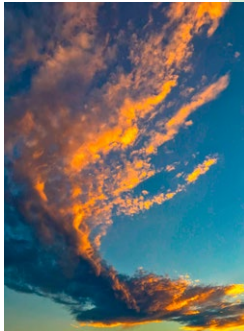
가족과 경전을 공부하는 재미난 방법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교리와 성약 20편 17~19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리와 성약 20편 17~19절을 읽는다.

1. 잠시 시간을 내어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한다.
2.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찾아본다.
3.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온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4. 19절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을 받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



토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 제공: 브렌다 슬레이드와 리사 토머스



이번 호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부활절의 중심—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살아 계심을 기념하는 게릿 더블유 공장로의 메시지에 대해 십 대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본다.

연차 대회 노트

연차 대회를 준비하고 대회를 시청하는 동안 기록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 영혼의 창문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종교 연합 음악 그룹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읽어 볼 수 있다.

주님의 영과 항상 함께하기 위한 나의 준비

파이퍼 장로가 영이 매일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대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조언을 전한다.

이번 호 『친구들』

안전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지원

한 소녀가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을 읽어 본다. 또한 자녀가 미디어를 안전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과 제언이 나오는 보너스 기사를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배우기

활동 그림을 활용해 자녀가 교리와 성약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러시아의 부활절

한 가족이 부활절 기간에 구주의 부활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읽어 본다.

즐거운 경전 속으로

특히 유아기 자녀를 위한 활동 아이디어 기사들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와서 나를 따르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간 활동을 찾아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희망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부활절 메시지를 읽고 부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해 본다.





6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202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 지역에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발표했다.

- 키리바시 타라와
- 바누아투 포트빌라
- 미국 유타 린던
- 과테말라
그레이터과테말라시티
- 브라질 상파울루리스트
-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새로운 일상”, 118쪽.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88쪽.

여기에 나오는 쪽수는 모두 2020년 11월호 『리아호나』에 해당한다.

고난 중에 축복을 받음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후기 성도들이 “지난 몇 개월에 걸친 어려운 시기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말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우리가] 이후에 찾아온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준 축복의 세 가지 예시를 알려 주었다.

- 가정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학습.
-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
- 성전 의식이 다시 제공되면서 찾게 된 큰 기쁨.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102~105쪽; 또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51~54쪽을 참조한다.

경전을 지키는 에머

제니퍼 리더
교회 역사부

에머 스미스처럼 우리도 경전을 지키고
용감하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다.

18 27년 9월 22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미국 뉴욕주 맨체스터 근처 시골길을 조용히 달리는 마차 한 대가 있었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금판에 기록된 고대 기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산으로 향했다. 모로나이라는 천사는 조셉에게 기록을 얻으러 올 때 그 일에 적합한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말했었다. 조셉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아내 에머가 적임자임을 알게 되었다.

에머는 선지자가 판을 받아 그것을 속이 빈 통나무에 숨길 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었다. 부부는 동이 틀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에머는 시아버지인 조셉 스미스 일세에게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금판을 훔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녀는 집에 남아 있던 말을 타고 한 시간 이상을 달려서 조셉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 덕분에 조셉은 판을 자물쇠로 잠근 상자에 넣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귀중한 경전을 지키기 위해 에머가 공헌한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남편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로 가던 여정에서도 그녀는 선지자를 도와 콩이 든 통에 판을 숨긴 적이 있었다. 판을 번역하던 시절에는 조셉에게 아마천을 주어 낮 동안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판을 덮어 놓게 했고, 종이에 기록한 원고를 보관할 붉은 가죽 상자를 사오기도 했다. 또 그녀는 시동생에게 상자를 하나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남편과 함께 밤마다 판을 그 상자에 넣고 잠가 침대 아래에 보관했다. 몇 년 후 퐁퐁 언 미시시피강을 건널 때, 에머는 선지자가 번역한 성경 원고를 치마 속에 숨기고 다니며 지켜 냈다.

그녀는 경전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몰몬경 번역에도 기여했다. 에머는 조셉의

첫 번째 서기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구절을 정성스럽게 기록했다. 그녀는 조셉이 한때 번역 작업에 사용했던 선견자의 돌을 보관할 주머니도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다.

생을 마칠 무렵, 에머는 이러한 경전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자신의 공헌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조셉이 회복의 선지자였고 몰몬경이 “놀랍고 경이로운” 책임을 간증했다.¹ ■

주

1.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교리와 성약

20~22편

3월 1일~7일

튼튼한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조 셉 스미스는 “성신의 감동을 받아” 구주의 회복된 교회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교리와 성약 21:2) 그를 통해 정확한 교리와 신권 권세가 회복되었다. 그것은 1830년 4월에 교회를 재조직하기 위한 견고한 기초가 되었다.

이 실물 공과는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준비

준비물

-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 6개 이상
- 평평한 판(예: 판지나 철판 베이킹 판 또는 나무판)
- 책이나 돌같이 무거운 물체 여러 개

각 컵에 “신권”이나 “경전”과 같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를 하나씩 적는다. 교리와 성약 20~22편에서 원리들을 찾을 수 있다.



기초 세우기

먼저 가족들에게 컵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될지 물어본다.

컵이 여러 개라면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

컵을 바닥이나 탁자에 엮어 놓는다. 컵을 한 줄에 세 개씩 두 줄로 놓는다. 평평한 판을 컵 위에 놓고 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리기 시작한다. 얼마나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가?



토론

이 실물 공과는 교회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교리와 성약 21편 1~6절을 읽고 가족이 함께 답을 토론한다.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 만장일치로 행해져야” 한다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26:2) 만장일치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교회의 다른 결정을 지지하는 원리로, 대체로 오른손을 들어서 나타낸다.”(경전 안내서, “만장일치”, scriptures.ChurchofJesus Christ.org)

우리는 회원을 지지할 때 “투표”를 하는가?

회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드는 것은 단순히 의례에 불과한 일인가?

“선지자이든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이든 스스로 부름에 임명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표로 선지자를 결정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음 말씀으로 그 점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16] 여러분도 저도 어떤 부름에서든 교회 지도자를 뽑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분들을 지지할 특권이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4~75쪽.

모든 부름도 마찬가지이다. 지지는 우리가 돕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며 그것을 행하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기회이다.

“우리는 손을 들어 지지를 표할 때 엄숙한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종들을 이끌고 강화시켜 주시도록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3:51 참조]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부름을 수행할 때, 그들의 권고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찾고 느낄 것을 기대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고 사람들에게 지지받다”, 『리아호나』, 2012년 6월호, 4쪽.

부름을 받은 회원들이 합당하게 부름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

누군가를 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어떤 회원이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되는 타당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반대하는 회원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염려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한 계시는 누가 받는가?

18 30년 8월, 물문경의 여덟 중인 중 한 명인 하이럼 페이지는 자신이 까만 선견자의 돌을 사용하여 장차 건설될 시온의 위치와 조직에 관한 두 가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계시는 이전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의 내용과 상충했지만, 많은 회원들은 하이럼의 말을 믿었다.



교회를 위한 계시

조셉이 하이럼의 계시에 대해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나의 종 [선지자]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니”라고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28:2) 그분은 “[하이럼이] 그 돌에서 취하여 기록한 것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탄이 그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28:11)

하이럼은 결국 자신의 계시를 포기했고, 모든 회원은 선지자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계시자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오직 살아 있는 선지자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속임수로부터 보호하는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

... 누군가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가 받지 않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¹

주

1. M. Russell Ballard, “When Shall These Things Be?” *Ensign*, Dec. 1996, 57)





복천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 주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면, 복천년으로 알려진 평화로운 천년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경전에서 복천년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찾아본다.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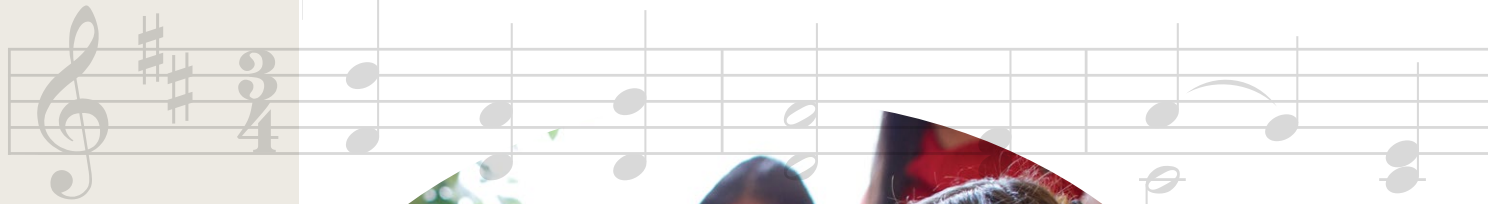
복천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구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과 희망을 키워 주는가?

<p>누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가? (교리와 성약 45:59)</p>	<p>복천년 동안 지상에 사는 것은 어떠할까? (교리와 성약 101:26~31; 63:51; 이사야 2:4; 11:6~9)</p>	<p>복천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교리와 성약 101:32~34)</p>
<p>의로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리와 성약 29:1~8)</p>	<p>사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리와 성약 43:31; 88:110; 니파이전서 22:26)</p>	<p>복천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교리와 성약 29:4, 7; 45:58)</p>
<p>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리와 성약 29:9, 17~21)</p>	<p>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리와 성약 29:26~29)</p>	



음악을

예배의 중심에 둬



기도는 영혼의 소망
말하든 안 하든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음악은 항상 교회
및 가정 예배의
중심이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교 회가 조직되고 몇 주가 지난 후, 주님께서는 에머 스미스에게 “나의 교회에서 사용하게 될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시며,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다.(교리와 성약 25:11) 성도들은 새롭게 밝혀진 복음 진리를 배우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예배와 배움의 중심에 찬송가가 존재하게 되었다.

오래전 우리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 음악을 배우도록 격려해 주셨다. 그때의 일 중 몇 가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 가족과 함께 “기도는 영혼의 소망”을(『찬송가』, 61장) 외우던 일.
- “오 높은 영광 보좌”를(『찬송가』, 139장) 들으며 언젠가 다시 보게 될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계시다는 것을 배웠던 기억.
- 사막에 살고 있었기에 라일락 나무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를(『어린이 노래책』, 16~17쪽)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순간!

세월이 흐른 후, 2020년 2월 말에 나는 성찬식 모임을 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 와드에는 암 투병 중인 회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날 와드 합창단이 “굳도다 그 기초”를(『찬송가』, 35장) 불렀을 때, 나는 마음 깊이 위안을 받았다. 몇 주 후, 격리 조치와 교회 모임 취소, 연이은 지진과 여진 등 불안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그 찬송가가 다시 내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하리라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때로는 온 세상과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일 쑥쑥 자라나는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 그리고 기타 성스러운 음악 등이 주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

목적이나 중요성에는 변화가 없음

교회 모임이 2시간으로 바뀌자,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이 축소된 것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 성스러운 찬송가는 성찬 의식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는 등 지금도 모든 성찬식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합창단과 회중의 찬송, 기타 성스러운 음악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 동안, 성스러운 음악은 비록 반주만 듣더라도 단축된 성찬식 모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시간의 절반을 음악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데 보낸다.
3. 두 번째 시간에 하는 성인 및 청소년 반은 개회 찬송이나 폐회 찬송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음악을 활용하여 공과를 가르치고 영감을 줄 수 있다.
4. 디지털 기기의 교회 음악 앱으로 성스러운 음악을 듣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다.

요구는 더 적게, 목적은 더 많이

그래도 여전히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어느 부활절 일요일, 한 교사가 복음 교리반에서 이렇게 사과했다. “주일학교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함께 ‘내 구주 살아 계시다’를 정말 부르고 싶군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그 교사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음악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예배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의 괄목할 만한 변화를 확인해 보자.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16,000곡에 이르는 새로운 찬송가와 노래와 가사를 보내 왔다.

그러나 일요일 모임에는 찬송가를 부를 시간이 부족한 모임도 있으므로, 음악을 계획하고 사용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역시 계심을 진리 영원한 이성 말하네

음악은 성스러운 언어이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노래로 그분을 찬양한다.(엘마서 36:22 및 교리와 성약 128:23 참조)

음악은 신앙을 표현한다.(사도행전 16:25 참조)

음악은 개심과 구속의 기쁨을 표현한다.(엘마서 5:26 및 엘마서 26:13 참조)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그때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는 자 모두가 나를 알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여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이어 한 목소리로 이 새 노래를 부르리라.”(교리와 성약 84:98; 99~120절에 있는 그 노래 가사를 읽어 본다.)

다음 두 가지 핵심 원리는 음악을 예배의 중심에 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가르칠 때 꼭 필요함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은 말씀과 토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한다. 그러나 음악은 가외의 장식물이 아니다. 권능과 영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심에는 음악이 있다.

사도 바울도 초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골로새서 3:16)

음악은 공과나 모임에 영을 바로 불러올 수 있다. 주일학교 공과나 『와서 나를 따르라』 토론 중에 부를 노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읽을 성구를 선택하거나 공과에서 어떤 부분을 나눌지 선택하는 것처럼 마땅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음악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평생 지속될 영적인 느낌을 남긴다.

2. “내게 기도가 되나니”

살다 보면 자신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앞에 놓인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도 있다. 때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계속 똑같이 기도드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나 해결책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그분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도 들 것이다. 때로는 기도마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늘과 영적으로 교감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위안이 될 진리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음악이 실제로 기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에머에게 교회의 첫 번째 찬송가집을 만들도록 명하시면서 이 진리를 직접 설명하셨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25:12; 강조체 추가)

그리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 그분을 찬양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축복으로 답하시겠다고 다음과 같이



부드러운 장미 만질 때나 라일락 옆 지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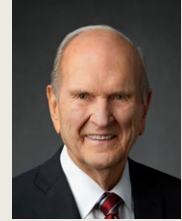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하리라



RIGHT: PHOTOGRAPH BY ROBERT CASEY



음악의 힘

“음악에는 영적인 양분을 제공할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 예배의 경건성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의 원리와 승영 의식을 통해 속죄와 복음의 회복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음악은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표현하고 신성한 진리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President Russell M. Nelson,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e Power and Protection of Worthy Music,” *Ensign*, Dec. 2009, 16.

약속하셨다.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그런즉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25:12~13)

나는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오랫동안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지만 응답이 왔는지 분별할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사랑하는 내 친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찬송가와 복음 성가를 연주하고 부르면서, 자주 가슴 벅찬 위안과 간증을 경험했다. 지금은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음을 안다. 그분은 몇 번이고 내 마음의 노래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음악은 정말로 내 마음을 고양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일요일이든

어느 일요일이든, 회중 가운데는, 공과반에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는 개인적인 고난의 심연에 빠져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이 넘쳐흐르는 평화로운 계곡에 있겠지만, 여전히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음악을 우리 예배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영을 느끼고, 복음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기회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노래를 통해 사랑 많고 영원하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



아들 보내셨네

독창

작사: 메이블 존스 가보트

작곡: 마이클 핀린슨 무디
편곡: 셸리 디포드

풍부하게 ♩ = 72



하늘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보였나 기록함 지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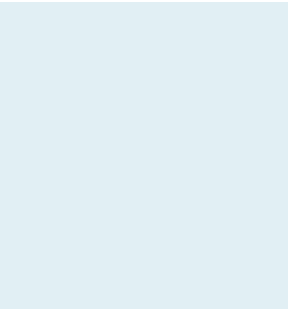
평화의 아들 보내셨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였나 우리와 함께



걸어 갈 아들 보내셨네 희생과 사망



세 상 에 어 떻 게 보 였 나 - 날 위 해 죽 고 살 아 날 아

들 보 내 셧 네 - 보 냈 네 -

cresc. *f*

하 늘 에 계 신 아 버 지 내 게 말 하 시 네 - 신

rit. *mf*

앙 과 소 망 지 니 고 이 웃 을 도 우 며

mp *a tempo*

아 들 처 럼

rit. *mf*

살 라 시 네 살 라 시 네 아 들 처 럼

a tempo *f* *rit.*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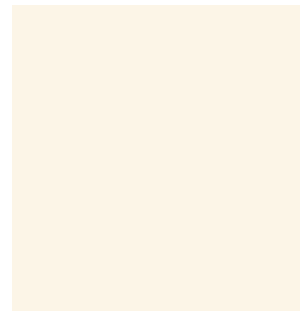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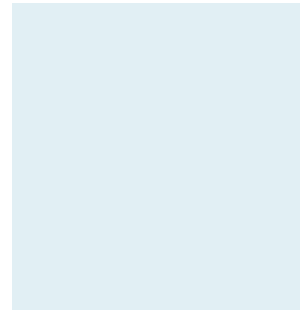




사진: 제임스 엘리프 제브러

교회의 일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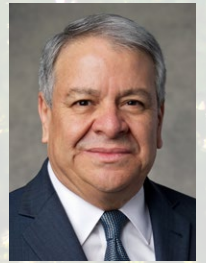
여러 해 전, 제가 멕시코 교회 홍보 사무실에 출근한 첫 주에 우리는 라디오 토크쇼 섭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종교에 대해 토론하는 그 토크쇼는 우리에게 45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그 섭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며 지역 회장님에게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할 사람으로 어떤 분을 보내야 할까요?”

대답은 이리했습니다. “물론 형제님이죠.”

저는 사무실에 온 지 얼마 안 된 데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연륜 있는 분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를 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갈 동반자도 찾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동반자와 함께 라디오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프로그램 사회자가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수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구주의 교회가 참된 교리, 신권 권능, 그리고 성스러운 의식과 더불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그렇게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더 짧고 대중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저와 제 동반자는 좋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며, 구주께서 후기의
선지자를 통해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5:4 참조)

그러자 사회자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매우
기쁘게 그 이름 전체를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는 여러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이름의 기원, 그리고 그 이름이 구주와 오늘날 그분의 교회
회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느꼈던 그 감미로운 영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와 동반자는 많은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는 교회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와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바로잡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우리가 그 권고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껏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권능과 축복을 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 넬슨 회장님은 202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그 약속을 새로이 하셨습니다.²

넬슨 회장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요청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하신 약속이 바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회원이 교회의 올바른 이름을

알리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으며, 회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에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고, 구주의
교회가 참된 교리와 신권 권능, 성스러운 의식과 더불어 회복되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회복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

교리와 성약 20편은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어남”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합니다.(1절, 강조체 추가)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된 이래, 주님은 당신이 부르신 지도자들을 통해
그 일어남을 지시해 오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신의 감동을 받아 [회복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주님은 넬슨 회장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이를 쌓아 올”리고, “선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시온의 대업을 믿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1:2, 7)

넬슨 회장님이 202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을 읽으셨을 때,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계속되는 인도와 그분 교회의 일어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된 회복이
지속적인 계시를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선언한다. ...



회복된 교회의 성역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분 짓습니다. 성역은 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넬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한 자신의 뜻을 알려 주고 계심을 분명히 선언한다.”³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하신 대로, 당신의 뜻에 귀를 기울인 초기 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을 따르다면, 다음과 같은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6)

참된 교리

조셉 스미스가 200년 전 성스러운 숲에서 배운 것 중 한 가지는 당시의 성직자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십이사도 정월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최근 우리 시대에도 비슷하게 “종교에 무엇이 부족하[여] … 성취되지 못한 갈구와 소망이 있[으며] “다양한 [교리적] 불만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 기관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있[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회복된 복음의 명백함과 충만함에 담긴 감미로운 구원의 교리입니다.

몰몬경에는 참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9) “몰몬경은 삶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해 [줍니다]. … 몰몬경은 … 모든 사람[이] 사랑이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께서 우리 삶에 대해 신성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⁵

참된 교리는 교리와 성약에도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책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회복 사업과 몰몬경 사이를 묶어 주는 고리”라고 불렀습니다.⁶

참된 교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속임수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시대에 부르신 현대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성신의 영향력 아래 하신 말씀이 주님의 뜻, 생각, 말씀, 그리고 음성임을 알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8:4 참조)

참된 교리는 영감과 힘과 위안을 줍니다. 이는 성신을 초대하고,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신권과 의식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 나아오고 그분의 교회에 와서 구원의 의식을 받으라고 권유하십니다.⁷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권세와 마찬가지로 의식은 주님의 참된 교회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는 이들은 주님께서 올바른 침례와(교리와 성약 20:37, 71~74 참조) 침례를 받은 후 회원들이 지는 의무에 대해 규정해 놓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68~70 참조) 그들은 평신도 회원들의 성역과 의무를 발견하게 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주께서 성역을 행하신 대로 성역을 행하게 될 기회를 생각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20:38~67 참조; 또한 모사이아서 18:8~10; 모로나이서 6:4 참조)

회복된 교회의 성역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분 짓습니다. 신권

봉사는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성역은 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참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가족을 영원히 묶을 수 있는 신권 권세와 의식을 찾게 되리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202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침례를 받고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았으므로 끊임없이 성신의 동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것은 여러분이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신권 권능으로 축복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⁸

이 교회의 일어남은 계속되고 있으며,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끕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신성한 인도, 그분의 회복된 교회, 신권 권능, 그리고 현재와 영원에 걸쳐 우리를 축복하는 의식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9쪽.
2. 러셀 엠 넬슨, “하늘을 열어 도움을 구함”,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73쪽 참조.
3.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앞표지 안쪽.
4. 제프리 알 홀런드,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3쪽.
5.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앞표지 안쪽.
6. 에즈라 테프트 벤슨,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9쪽.
7.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앞표지 안쪽 참조.
8. 러셀 엠 넬슨, “그의 말을 들으라”,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88~89쪽.



침례의 구원 의식을 집행하는 아프리카의 신권 소유자.



넬슨 회장 부부가 2019년 5월 16일 하와이 코나에서 열린 영적 모임이 끝난 후, 교회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할아버지, 전 아가가 아니라고요”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어린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현재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고 과거의
추억도 떠올리게 된다.

손녀 릴리가 막 네 살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아이를 어렸을 때 별명인 “릴스 아가”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를 때면 손녀는 “할아버지, 전 아가가 아니라고요”라고 나에게 알려 준다.

손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아이가 여전히 아가가 있으면 싶다. 릴스 아가라고 계속 부르면 어쩌면 그 아이가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적어도 손녀가 운전 시작할 나이가 될 때까지는 릴스 아가라고 부를 작정이다.

물론 손살같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하늘의 달과 해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실제로 내 자녀들과 그렇게 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실패했지만, 야곱이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 마치 한 조각 꿈처럼 지나갔다.”(야곱서 7:26) 어느 순간 막내아들까지 선교 사업을 나가고 나면, 아내와 나만 집에 남아 텅 빈 침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만 곱씹게 될 것이다.

최근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들었다. “나이가 들면 감정도 깊어져.” 전적으로 동감한다. 반백 년 이상을 살다 보면 온갖 희로애락을 겪기 마련이다. 우리는 사랑이 상실과 더불어 성장하며,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식의 삶은 다음 생에서나 오는 것이지 이생에서는 얻을 수 없음을 안다.

릴리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그 아이가 어떤 사막을 건널지, 어떤 짐을 짊어질지, 어떤 육체의 가시를 경험할지 궁금해진다.(고린도후서 12:7참조)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정서적 성장에 필수적인 이러한 필멸의 교훈으로부터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손녀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한다. 누구에게나 오는 그런 고난이 손녀에게 오더라도 주님께서 그 아이를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 저 잡아 보세요.” 릴리가 뛰어가며 말한다.



나는 손녀를 쫓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간다. 그 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음악이요, 빛나는 얼굴은 햇살이다. 잠시, 25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가 본다. 나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 릴리의 엄마인 내 딸과 함께 있다. 딸은 네 살로 돌아갔다. 그리고 릴리처럼, 내가 그 아이를 쫓는 동안 집 안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리고 웃는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오른다. 1974년, 나는 형제들과 함께 증조부인 커티스 엘즈워스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이생에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내가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90세를 일기로 돌아가신다.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이것이 알고 싶었다. “엘즈워스 할아버지는 당신의 후손인 우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당신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셨을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셨을까? 우리를 보며 인생이 참 빠르다 하셨을까?”

오래전 우리가 작별을 고했을 때, 엘즈워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궁금했던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는 알 것 같다. ■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특별히 노년기의 독자를 위한 기사를 다룰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었으면 하십니까? liahona@ChurchofJesusChrist.org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지구를 더 잘 돌보는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잘 돌볼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은 더 잘 지탱되고, 고무되고, 강화되고, 활기차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4월 12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교에서 열린 제18차 연례 스테그너 센터 심포지엄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저

의 취미는 하이킹, 스키, 바다 카약, 자전거 타기, 심지어 사파리 구경 등 모두 자연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숲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뚝 솟은 상록수가 고요하게, 그리고 수려하게 창조주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연구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삶의 목적과 지구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겨 둔다면, 우리가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높고 고귀한 방법으로 대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주님은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는 은사를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구약전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물들을 생각하며 그런 경이로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는 이유를 매우 궁금해했습니다.(시편 8:4 참조) 다윗은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특별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시편 8:5)

모세는 또한 시현으로 무수한 세상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¹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나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모세서 1:10)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의 장엄함 앞에서 마음이 낮아진 모세는 위대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한한 창조물을 다시 보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모세서 1:39) 참으로 이 지구와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구의 목적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우리를 의미함]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아브라함서 3:24~25; 또한 26절 참조) 이 지구에서의 삶은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은사와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구하고 언젠가 그것을 받을 것을 선택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²

지구의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리라는 것을 보셨기에 기뻐하셨습니다.³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이루는 가족은 이 땅의 단순한 침입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그 목적의 중심입니다.⁴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축복과 함께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또 땅에서 나는 것은 사람이 음식과 의복으로 사용하고 또 풍성히 가지도록 정하여진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9:19) 하지만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의 작품”이기에(교리와 성약 29:25) 그것은 모두 주님께 속합니다.⁵ 이 땅의 임시 거주자인 우리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한 일에 대해 주인이신 그분께 책임을 집니다. “이는 나 주가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피조물을 위하여 내가 만들고 예비한 이 지상의 축복을 관리할 청지기로서, 책임을 지게 함이 필요함이라.”(교리와 성약 104:13)

지구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하는가,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치르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생명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며, 지구의 풍요로움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⁶ 주님께서서는 모든 생명, 특히 그분의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이 주신 창조물의 풍성함으로 무엇을 하기를 선택했는지(또는 하지 않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지구를 어떻게 돌보는가,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유하는가, 우리에게 제공된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치르는 시험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구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땅의 총만한 것이 [우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 또 그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 목적을 위하여 그것들이 만들어졌음이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59:16, 20)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감사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받기를 바라시는 축복을 과거, 현재, 미래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너머를 바라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창조물을 업신여기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피조물은 고통받게 됩니다.

예녹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과 숨이 막힐 듯한 이기심 때문에 우셨다고 기록했습니다.⁷ 모로나이는 후기에 “불과 태풍과 연무 … [그리고]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상태는 “온갖 가증함”과 결합되어, “그때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나니”라고 말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물몬서 8:29, 31) 사람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또는 현세적으로 오염시킬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연도 고통받습니다!⁸

중요한 것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와 복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권능은 인간의 영혼을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크게 확장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고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돕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체는 소비 혹은 보존의 대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의 일부이거나 거기에 속하는 것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훼손되지 않는 자연과 “땅에서 나는 것들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며] … 영혼을 활기 있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59:18~19)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물질주의의 소음과 산만함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더 높고 위대한 차원으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땅은 그 날개로 회전하며, 해는 낮에 그 빛을 주며, 달은 밤에 그 빛을 주며, 별들도 또한 그 빛을 주나니 … 이 중 어느 것이든지 또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 자는 누구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45, 47)

저는 여전히 웅장한 화강암 바위와 봉우리들이 우뚝 솟은 높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산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그분의 비길 데 없는 비범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엘마가 간증했듯이,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며],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합니다].”(엘마서 30:44)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제 시야 속에 들어오는 시간과 공간의 영원함을 헤아려 보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조용한 순간에 오는 지식, 즉 우주의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의 주님께서 미약한 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항상 감탄합니다. 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아십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때 묻지 않은 이 특별한 곳을 지켜 낸다면, 우리는 유창하고 심오하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더 잘 돌볼수록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더 잘 지명하고, 고무하며, 강화하고, 활기차며,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의 행성, 즉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지구가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⁹

부디 우리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보금자리인 이 지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

주

1. 히브리서 1:2 참조.
2. 니파이후서 2:16 참조.
3. 모세서 2:31 참조.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5. 또한 교리와 성약 38:16~17 참조.
6. 교리와 성약 104:17~18 참조.
7. 모세서 7:28 참조.
8. 모세서 7:48~49 참조.
9. 교리와 성약 88:18~20 참조.

난임을 통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에 대해 내가 배운 것들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도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진 옐로호스

태

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주셨다.(창세기 1:28; 모세서 2:28)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4년 반이나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다. 이 글을 읽을 독자 중에는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미 이런 말들을 다 들어
보았다.

“어머, 아직 젊으신데요 뭘!”

“아이들이 없는 지금을 즐기세요!”

“자유로울 때 맘껏 자유를 누리세요!”

나는 그런 말에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넘기는 법을 배웠다.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겨우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이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쉬운 순간도 있긴 하다. 지난 2년 동안 남편과 나는 유럽에
살면서 갈 수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곳을 여행했다.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친구를 만나며 우리의
생각과 견해와 세계관을 넓혔다. 이런 시간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나는 남편과 더 가까워졌고,
많은 것을 배웠고, 놀라운 모험을 했다.

하지만 소파에서 영화를 보며 보낸 밤도 많다.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 와드에는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가 단 한 쌍 있는데(스포일러 주의!) 그건 바로
우리 부부다. 어떤 모험을 하든 자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같다.

감정적인 부침을 겪는 동안 자주 아담과 이브가 받은 계명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우리는 이 계명이
오늘날에도 완전한 효력이 있으며 우리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남편과 나는 지금까지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도 처음에는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인 동산 가꾸는 일을 했다.
나는 에덴동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상의 동산, 네덜란드의
동산, 가족의 동산, 와드의 동산에 살고 있다.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내 동산들이다. 나는 명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말들을 곱씹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을 다시 타인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내가 자주 생각하는 말들은 이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나의 영적 우물을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세상의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희망과 믿음을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더 집중하면서, 나는 강력한 방법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기회를 얻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청년 조직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시간 조정이 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잠시 중단하고 누군가가 짐 싸는 일을 돕거나 친구들의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었다.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칠 수 있었고, 복음 공부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더 잘 나눠 질 수 있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에 대해 더 큰 지식과 간증, 그리고 영적인 이해를 얻었다.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계명이 자녀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을 의롭게 양육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가능한 경우 자녀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녀를 갖는 축복을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의 동산을 가꿈으로써** 그 계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난임 때문에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씁쓸하거나, 샘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겁이 나면,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려 노력한다. 내 동산을 가꾸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



진 옐로호스는 연극 교사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놀이를 하고, 현실 세계와 허구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을 사랑한다. 이 기사를 쓴 이후 진과 그녀의 남편은 다음 모험을 찾아서, (그리고 동산을 찾아서) 미국 뉴멕시코주로 이주했다.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추가 기사

복음 자료실(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모바일 앱)에 있는 3월호 『리아호나』의 온라인 버전에서 특별히 청년 성인을 위해 준비된 기사들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구를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

나의 단별 바지: 간소한 삶에 대한 복음의 관점
사무엘 하포넨, 핀란드 우시마

아름다운 지구를 위하여
아벨리즈 가디너, 교회 잡지

기독교 전통에 대해 배움으로써 부활절은 내게 더욱 의미있는 것이 되었다
해나 모텐슨

격리 기간 동안 성찬을 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다
벤 버닝햄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에서도 매주 새로운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교부 임지에서: 봉사 선교사가 내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이유
애슈턴 러딩턴, 미국 유타

삶의 기술: 깔끔한 정리를 위한 팁을 활용하여 자신의 공간을 성스럽게 만드십시오
물리 홀트, 교회 잡지



도표로 보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

1830년 6월 9일에 첫 번째 연차 대회가 열린 이후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감을 받아 계속해서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준 연차 대회 말씀은 어떤 것인가?

강진, 노트북, TV 속 남자 이미지: GETTY IMAGES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 **10,000+**

단어 **24,000,000+**



연차 대회의
통역 언어 수

연도	언어 수
1961	2
1971	8
1981	18
1991	27
2001	51
2011	80
2021	96

“너는 ...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선지자]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교리와 성약 21:4~5

연차 대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5개의 성구



값진 진주:

1. 모세서 1장 39절

구약전서:

2. 다니엘 2장 44절

값진 진주:

3.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값진 진주:

4. 모세서 7장 18절

교리와 성약:

5. 13편 1절



지난 수십 년 동안
연차 대회에서 사용된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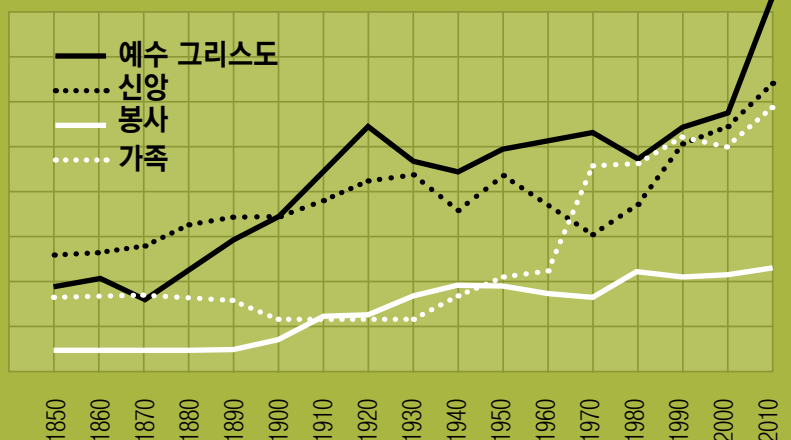
1924

10월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최초의
연차 대회



상대적 사용 빈도



청년 성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살피십시오

42



복음의 기초들
성찬을 취하는 이유

6

와서 나를 따르라
“교회의 일어남”

25, 36

음악
우리 예배에서
차지하는 자리

30, 3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